

“일제강점기 언론·문화운동 선봉·자유민주국가건설 초석”

21세기 담양포럼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특강

담양 출신, 언론 활동으로 항일운동

3·1운동 실질 기획·총연출자 역할

손기정 선수 우승 사진 일장기 지워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문화 확산

2024년 06월 06일(목) 17:43



(재)대한민국역사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187회 21세기 담양포럼에서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민족주의 사학의 거인이었던 위당 정인보(1893~1950년)가 “정부도 없고 엄혹한 감시와 압박의 일제 시대에 오로지 혼자 동아일보를 짊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몸 바친 인물은 고하 밖에 없다”고 칭송했던 독립운동가 고하 송진우(1890~1945년).

고하 송진우 선생은 결출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 사상가지만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다. 동아일보 사장으로서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하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암흑 같았던 일제시대에 민족의 목소리를 담은 신문을 홀로 짊어진 선구자가 돼 희생과 탄압을 무릅쓰고 민족의 앞길을 열어간 고하 송진우 선생을 재조명하는 움직임 본격화되고 있다.

●김형석 이사장 초청

담양군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애향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지난 5일 담양문화회관에서 187회 ‘21세기 담양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재)대한민국역사미래 김형석 이사장을 초청,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을 주제로 담양에서 태어난 항일 독립과 민주 건국의 지도자인 고하 송진우 선생의 일대기와 정신에 대해 강의했다.

났다. 저서로는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2024)', '끝나야 할 역사전쟁(2022)', '광주 그날의 진실(2017)'이 있다.

김 이사장은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김 이사장은 "담양은 예로부터 예향·문향·의향으로 불리며 수많은 인물을 배출한 명사의 고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담양 출신으로 나라를 움직이는 인물이 많다.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사의 고장으로 역사에 기록된 인물만 500명이 넘는다"며 "충신과 청백리 250여명, 문인·명현 100여명, 충의 열사 50여명이며 의병과 독립투사는 수도 없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진우 선생의 호인 고하는 태어난 곳인 담양 금성면 손곡리의 고비산처럼 곳곳에 살라는 뜻이다"며 "6년간 그를 가르친 의병장이자 성리학자인 기삼연 선생이 지어줬다"고 덧붙였다.



(재)대한민국역사아미레 김형석 이사장이 187회 21세기 담양포럼에서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민족의식 고취

1890년 담양 금성면에서 태어난 고하 송진우 선생은 1915년 김성수를 도와 당시 경영난에 빠져 있던 중앙학교를 인수해 제10대 교장으로 취임,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에 주력했다. 1919년에는 3·1운동을 기획하며 천도교 측과 기독교 측의 연합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했다. 3·1운동을 기획한 48인 중 한 사람으로 지목돼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옥고를 치렀다. 또 1921년 9월 14일 동아일보가 창립되자 제3대 사장에 취임, 언론인으로서 물산장려운동 및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925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평양 연안 기독교청년회 주최로 제1차 범태평양회의가 개최되자 서재필과 함께 국내 대표로 활약했다. 1926년에는 국제농민회 본부에서 조선 농민에게 전하는 3·1운동 7주년 기념사를 3월 5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해 무기 정간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송 선생은 1927년 10월 제6대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한 이후 문맹퇴치운동과 브나로드 운동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언론 활동을 통한 항일운동에 힘썼다. 1929년에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범태평양회의에 참석했다. 1945년 8·15 광복 후에는 한국민주당을 조직해 수석 총무로서 활동하다가 한현우에게 암살당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1983년에는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에 그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고, 1991년 5월에는 담양군 담양읍 관어공원 내에 '고하 송진우 추모비'가 세워졌다. 2009년에는 담양에 있는 생가가 복원됐고, 2010년엔 생가 옆에 고하 송진우 기념관이 건립됐다.

2021년 8월에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처, 광복회와 공동으로 일장기 말소 기사 보도를 통해 민족의식 고취에 기여한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독립·자유 민주국가 건설 이끈 선구자

김 이사장은 “고하는 해방 직후 좌우 이념의 갈등이 극심하던 시기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둔 국가 건설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민족운동가이자 정치사상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하는 김성수·현상윤과 함께 3·1운동을 처음으로 모의한 중앙학교 3인방이자 동아일보 사장으로, 1920~30년대 언론·문화운동을 주도하며 독립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온몸으로 투쟁한 인물이다”고 말했다.

고하는 일제 강점기 동안 네 차례나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고, 세 차례 구속돼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모두 27개월의 옥고를 겪었다.

또 백범 김구의 노모 광락원에게 선혈을 베풀고, 백야 김좌진의 독립군 부대에 군자금을 지원한 일화도 사실로 검증이 된다.

그가 쓴 논설 ‘자유권과 생존권’을 보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적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기간산업의 국유화, 유상물수 유상분배의 토지개혁, 사형제 폐지 등 당시로는 매우 선진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다. 국민대회준비회도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모든 정파의 인사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었다.

김 이사장은 고하 송진우 선생의 다양한 활동과 업적, 학계 평가 등을 토대로 “독립과 자유 민주국가 건설을 이끈 선구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고하는 3·1운동의 실질적 기획자이자 총연출자였다”며 “고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된 자유, 평등, 민주 사상을 수용한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자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하가 1925년에 쓴 글을 보면 일본과 미국의 총통,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예견하는 통찰력을 보였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야 함을 강조한 선각자요 실천적 이상주의자였다”고 말했다.

●일장기 삭제 사진 게재 고초 당해

김 이사장은 “고하의 민족정신은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붙인 일장기를 지운 우승 사진을 게재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하는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하자, 동아일보에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붙인 일장기를 지운 우승 사진을 게재해 제4차 무기 정간을 당하고, 총독부의 압력으로 같은 해 11월 사임했다.

앞서 1932년 김은배 선수가 LA올림픽 마라톤에서 6위를 차지한 것을 보도에서도 가슴에서 일장기 말소하고 Y자 새긴 사진을 게재했었다.

김 이사장은 “고하가 해방 후 127일간 보여준 보국 헌신의 열정이 자유 대한민국 건설의 초석이 됐음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하는 자유, 평등, 민주 사상을 수용한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자다”며 “고하의 민족주의와 함께 그의 사상이 지닌 근대성도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하 송진우 선생은 48인 민족대표로 3·1운동을 주도하고, 동아일보 사장으로 문화적 민족운동을 선도한 독립운동가였다”며 “그가 해방 이후 자유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헌신한 열정은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됐다”고 강조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고하 송진우 선생

[← 뒤로](#) [프린트](#) [메일](#) [스크랩](#) [↑ 위로](#)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독자권익위원회 규정
의
광고문의](#)

[윤리강령
기사제보](#)

[편집규약](#)

[청소](#)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광주 아-00185 등록일 : 2015년 1월 2일 회장:박철홍 대표이사 발행인·편집인:김경남 편집국장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사동) 대표전화 : 062) 720-1000 팩스 : 062) 720-1080~1 이메일 : jndn@ch 본 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